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형성 실태조사

전현곤*

요 약

본 조사연구는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관계, 공동체적 교육활동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공동체 형성정도를 파악하여 학교를 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연구와 실천적 활동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첫째,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의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둘째, 학부모들의 관계의식은 중간이나 중간을 조금 넘는 정도로 학교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학교와 학부모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학부모들의 공동체적 교육활동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과적으로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 형성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따라서 학교를 비롯한 교육의 각 주체들은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교와 학부모간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제어 : 학교공동체, 학교공동체의식, 공동체적 관계, 공동체적 교육활동, 학부모의 교육 참여

논문 제출일 : 2009. 01. 15 최종 심사일 : 2009. 03. 24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시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un, Hyun-Gon, Lecturer, Dep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chun62@paran.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경쟁적 학교문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에서 학교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전개의 배경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와 이성적 합리성을 강조한 근대성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교육학적인 면에서는 현재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학교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학교가 관료제적 조직 모델에서 벗어나 공동체 모델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공동체의 개념 및 구축방안, 학교의 공동체적인 특성 등을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노종희, 1998; 주철안, 2001; 박부권의, 2002; 정영수, 2003).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위학교를 공동체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연구들도(한대동 외, 2007; 김대현, 손우정, 2005; 전현곤, 한 대동, 2007; 서근원, 2004)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학교공동체란 학교 내부구성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Furman, 2002). 이는 단위학교는 실제로 지역사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학교를 둘러싼 생태계를 외면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를 둘러싼 사회의 영향에 무관한 독립적인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주철안, 2001, Merz & Furman, 1997; Croninger & Finkelstein, 2002). 또한 학생의 교육적 효과에서도 단위학교를 공동체로 구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배우고 있는 지역사회 생태계 내의 다양한 공동체들 간에 교육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Sergiovanni, 1994; Epstein, 1995; Merz & Furman, 1997; Coleman, 1998)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학교가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가 지닌 교육적 잠재력을 개발, 활용하여 학교를 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사 혼자 혹은 학교만 가르치려 할 게 아니라 가정(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학교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모두가 함께 가르치고 배워나간다면 훨씬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실천적 노력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작업으로서 현재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특성의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인 학교공동체 형성전략과 실천적인 모델구축에 있어서 현재의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 형성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교사와 학생과 같은 직접적인 학교구성원 뿐만 아

나라 학교공동체 구축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가지는 중요성이 비추어 볼 때 학교공동체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형성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의 학교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교공동체의 핵심적인 요소들로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 학교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돌봄의 관계맺음, 그리고 상호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적 교육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형성수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수준,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수준 그리고 공동체적 교육활동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교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경우 공동체의식 속에 관계의식, 공동체적 활동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관계와 활동을 의식에 포함시켜 단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특성이 갖는 복잡성과 다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공동체의 상황을 보다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공동체의 한 측면을 구성하는 학부모들의 공동체적 특성을 공동체에 대한 의식,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교육활동의 수준으로 확장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공동체의식, 관계, 활동의 의미

학교공동체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Sergiovanni,1994; Furman, 2002; Beck & Foster, 1999; Merz & Furman, 1997; Philips, 1997; Battistich, Solomon, Kim, Watson, & Schaps, 1995; Bryk, Lee & Holland, 1993; 주철안, 2001; 박부권외, 2002; 정영수, 2003)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학교공동체가 형성된 학교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구성원들의 관계가 밀접하고 민주적이며 구심점이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분위기는

가족과 같이 서로 인정, 존중되며 편안한 상태이며 구성원들의 심리상태를 보면 이해, 관심, 존중, 신뢰, 소속감, 헌신, 충족감, 돌봄과 배려, 우리감정(we-feeling)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둘째, 공유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유된 가치, 신념, 감정을 통해서 결속된다. 셋째,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실천이 있다. 넷째, 상호 보살피고 지원하는 인간관계를 맺는다. 다섯째, 공유된 규범, 목표, 가치에 따른 내부적 통제 방식에 의존한다. 여섯째, 전문성의 성장, 동료성의 성장, 학업성취를 향한 공동체적인 연대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때 학교공동체란 소속감, 이해와 배려, 우리의식 등과 같은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 그리고 헌신의 관계가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배움과 돌봄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형성수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와 활동을 의식에 포함시켜 단면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의식수준,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수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공동체적 교육활동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a sense of community)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적 의식을 의미한다. Poplin은 공동체의식을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 공동목적을 추구한다는 일체감, 자발적 참여의식, 전인격적 인간관계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Nisbet은 우리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을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보았다(김경준, 1998에서 재인용). 한편 McMillan & Chavis(1986:6)는 공동체의식은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충족감(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onnection)의 요소로 구성됨을 제시하고 있다. 우남희 외(1998)는 국내외 연구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정의를 종합하여 공동체의식을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집단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는 것, 권위적-배타적 집단주의, 자율성과 공공의식의 6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공동체의식에 대해서 Smith(1994), Wehlage et al(1989)은 학교 공동체의식을 배려적인 교사, 아동,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 상호적으로 발달되는 공동체의식, 사회적 유대감, 소속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Newmann(1992)은 학교공동체의식을 애착, 참여, 헌신, 신념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목적의 명료성, 공정성, 사회적 지원, 성공경험, 배려의 풍토를, 저해요인으로 부적응, 학업곤란, 부조화, 고립을 들고 있다.

공동체의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학교공동체의식을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적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간의 관계를 포함하며 때로는 구성원들의 공동체를 위한 참여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학교공동체의식을 의식, 관계, 활동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글에서의 학교공동체의식이란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학교공동체의식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 요인과 활동요인을 제외한 공동체적 학교관(교육관), 돌봄과 협력의 의식, 참여의 정신, 소속감,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이 성장발달하고 있다는 충족감, 정서적 일체감, 민주성과 공공성으로 정의한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관계란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인격적 관계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학교구성원들(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사이의 존중과 신뢰의 감정, 동료애,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을 의미한다.

한편 공동체적 교육활동이란 학교구성원들이 공동의 노력과 관계맺음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의 가르침과 배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다양한 개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활동적인 학습과 그 다양한 학습을 나누어 갖는 즐거움을 실현하는 협동적인 배움을 구축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에게 있어 공동체적 교육활동이란 수업참여를 비롯한 학교교육활동 참여, 학교운영활동참여,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으로 구성된다.

2. 학교공동체형성에 있어서 의식, 관계, 실천의 의의

1) 학교공동체의식

학교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협력 그리고 배려의 풍토를 낳음으로써 학교를 이기적 배타성의 공간에서 공동체적 협동의 공간으로, 공격적 지배성을 조화로운 유연성으로, 타자와 갈등을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시킨다. 이 속에서 구성원들은 안정감과 유대감 그리고 배려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학교공동체의식은 이처럼 경쟁과 도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 배려하는 의식을 길러줄 뿐 만 아니라 진정한 배움, 더 큰 배움의 세계로 이끈다.

학교공동체의식과 학교구성원들의 학교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학교공동체의식이

긍정적인 학교활동으로 이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학교 내의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에 공동체적인 의식과 풍토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kover et al, 1979; Rutter et al, 1979).

교사들의 공동체의식은 동료교사들 간에 일체감, 소속감, 협력적 상호의존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직무의 과편화 현상에 맞설 수 있는 저력이 된다. 학교 공동체의식은 교사들 간의 결속력과 학교교육목표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별적인 지원과 동료적 원조를 제공해줌으로써 효능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Lee, Dedrick & Smith, 1991).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학교, 학업성취 그리고 교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은 학생의 정의적, 인지적 영역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학생들의 학교공동체의식은 학생의 타인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나 교사를 보다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보다 더 배려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게 한다. 경쟁적이고 고립적인 상황이 제공하는 거부, 제외, 혹은 무시의 감정은 분노, 우울, 비탄, 질시 그리고 고독으로 이끄는 반면에, 공동체의식이 제공하는 수용, 참여, 환대의 감정은 행복, 설렘, 만족 그리고 안락감 등의 긍정적 정서로 이끈다(Osterman, 2000; Solomon et al, 2000; Brookover et al, 1979; Rutter et al).

학교가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학부모의 학교공동체의식은 중요하다. 부모는 일차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아동에게 전달하고,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감각, 타인에 대한 느낌, 그리고 유능감의 정도나 인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교실에서의 교사가 지닌 역할보다 덜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중요한 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학부모를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부모가 가지는 우리의식, 학교에 대한 소속감, 돌봄과 배려의 정신, 참여의식 등과 같은 학부모의 학교공동체의식은 학부모와 교사 간, 학부모와 학생 간, 학부모 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고, 학교교육활동에의 실제적인 참여도 높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공동체적 관계

학교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는 구성원들에게 안정감과 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효과를 미친다(Newmann et al, 1996; Pianta & Steinberg, 1992; 이숙정, 2005). 교사들 사이에 강력한 동료애 관계를 갖는 학교는 교사들 간에 서로 독립적인 학교들 보다 효과적이다. 교사들 사이에 보다 많은 상호의존적 협력, 강한 직업적 유대관계, 그리고 상호간의 복지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학교에서는 교사와 아동 모두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Lee & Croninger, 1996). Lortie(1975)도 교사들 간의 동료성이 교사들의 효능성, 집단적인 책임감,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책무성의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교사들 간에 동료적 관계가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들 사이의 연대와 교육적 목적에 대한 합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아동의 공동체의식발달과 학업성취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 혹은 연결망은 중요하다. 이는 공동체의식은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또한 관계를 떠난 배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인간관계적 유대는 아동의 성장,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그들의 역할방식, 타인들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 Croninger, 1996). 또한 교사가 자신을 지원할 것으로 믿는 아동들은 보다 많은 학구적인 동기를 가지며,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Eccles et al., 1993). 학교가 아동에게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자 한다면, 특히 구성원들의 지원과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들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교사와 동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학습과정 자체는 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성공적인 학습참여는 더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오며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기여한다(Newman et al, 1996).

또한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로운 관계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생의 학업성취와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Coleman, Hoffer, & Kilgore, 1982). 같은 맥락에서 Braatz & Putnam(1996)은 학교와 가정의 조화로운 협력이 학교개선을 촉진하고 아동의 학업성취의 개연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어떤 연구(Heath & McLauhlin, 1993)는 학습은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안하면서 가정, 학부모, 더 넓은 지역사회 간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학교가 공동체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교사, 아동,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공동체적 교육활동

배움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미와 관계를 구성하는 일이라면 이러한 배움은 경쟁적이고 개별적인 학습보다 타자와의 관계와 협력 속에서 더 잘 일어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개별적, 경쟁적 교육방법을 통해 수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움과 돌봄의 학교공동체의 이상은 교육활동 자체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개별적이고 경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성장시킬 수 없고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점에 대해서 일본에서 ‘배움의 공동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토 마나부(佐藤 學, 1999, 손우정 역, 2001)는 학교가 ‘배움의 공동체’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적 배움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학교가 배움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 일상의 수업을 통해서 교실이 ‘배움의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학교공동체 형성의 과제로 첫째, 개인주의적인 배움을 공동체적인 배움으로 전환하는 일, 둘째, 학교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장소로 개혁하는 일, 셋째, 학부모와 시민이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활동에 참가하고 자신도 성장하는 학교를 건설하는 일, 넷째, 학교의 자율성을 학교 내부에서부터 수립하는 일, 다섯째, 학교를 자율적인 ‘전문가조직’으로 재조직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Vygotsky(1978, 신현정 역, 1985)는 비슷한 또래 아동의 협력적 활동은 서로의 근접 발달영역 안에서 모델링을 통하여 지적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문성(1994)은 협동학습은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개별학습이나 경쟁학습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고급사고력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협동학습이 교과에 대한 태도, 학습동기, 사회성, 자기효능감, 학습태도, 대인관계지능, 교육관계 등에 긍정적인 효과(양낙진, 1990)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연구들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와 학교공동체의식이 학교를 공동체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학생들의 공동체의식과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시키는 노력은 학교의 공동체성을 증대시키고(Epstein, 1995;

Muller, 1993),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학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학교 개선을 촉진하고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대시키고, 교사·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한다(Braatz & Putnam, 1996; Coleman, Hoffer, & Kilgore, 1982). Coleman, Hoffer & Kilgore(1982)는 사립학교 및 카톨릭학교의 학생들이 공립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성취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학부모-교사 간담회, 학부모회, 학교자원 봉사 등에 대한 학부모 참여의 차이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Bryk, Lee, & Holland(1993)도 카톨릭 학교의 높은 학업성취, 낮은 중도탈락율,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는 고른 성취 등은 ‘공동체적 조직으로서의 학교’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학부모의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Muller(1993)은 학부모와 학교의 유대관계 그리고 학부모-교사 조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는 학생의 성적과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학부모간의 연결망 혹은 지역사회 연결망이 학생의 성적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중요한 업무를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적인 수업활동을 도와주는 일에서 부터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 인사나 기관들 까지 교육의 과정에 끌어들이고 파트너십에 의한 학교경영실천(Epstein, 1995; Conley, 1997; Furman, 2002)에 까지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일교사 및 가정교사, 학교행사에 참관, 프로그램 지원자, 학교의 중요한 사안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학교 또는 교사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적절히 하는 일(자문 및 의사소통자), 교육문제를 관계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해결하는 일(문제해결자), 학교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스스로 배우는 모임을 만들어 계속 학습해 나가는 일에 이르기 까지 여러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이순형, 2003).

3. 학교공동체의식, 관계,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교육과 관련한 국내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는 ‘21세기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동체 교육’(우남희 외, 1998)과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논문(임만수, 1998; 권오상, 1999; 이광용, 1999; 박정민, 2002), 교사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한 논문(이영진, 2004; 이진영, 2004) 등이 있으며, 다른 한편 교수방법이나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에의 참여, 부모의 양

육태도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주주자, 2003; 신정아, 2005; 최영아, 2005),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공동체적 도덕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학부모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우남희 외(1999)는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부모들의 공동체의식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모들의 공동체의식이 더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현신(1999)은 부모의 공동체의식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공동체의식 중 '자율성과 공공성'이 아동의 책임행동과 규칙준수행동에 정적 상관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에서의 학교구성원들의 학교공동체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위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학교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단순 측정만 한 연구논문과 학교조직이나 직무만족도 등이 교사들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논문이나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 학부모의 학교공동체의식, 관계, 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조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공사립 초등학교 24개교의 학부모집단이다. 학부모집단에 대한 표집방법으로는 부산시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학교를 6개 지역교육청별로 가, 나, 다 급지에 한 학교씩 무선으로 선정한 후 표집된 학교의 4, 5, 6학년 중에서 각각 2반씩 표집 하여 표집된 반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5개의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 5, 6학년에서 2반씩 표집 하되 학급수가 2개 반 미만의 경우에는 1개 반만 포함 시켰다.

<표 1> 조사대상 학부모의 인원수와 배경적 특성

배경적 특성			합계	
성별	남: 841(15.4%)	여: 4089(79.1%)	결측값: 257(5.5%)	4672
부학력	국졸: 17(0.4%) 중졸: 66(1.4%) 고졸: 1272(27.2%) 전문대졸: 420(9.0%) 대졸: 1986(42.5%) 대학원 이상: 488(10.4%)		결측값: 413(8.8%)	
모학력	국졸: 13(0.3%) 중졸: 109(2.3%) 고졸: 1760(37.7%) 전문대졸: 678(14.5%) 대졸: 1584(33.9%) 대학원 이상: 157(3.4%)		결측값: 367(7.9%)	
공사립	공립: 4034(86.38%)	사립: 637(13.6%)	결측값: 1(0%)	
학교급지	가급지: 1636(40.6)	나급지: 1324(32.8%)	다급지: 1074(26.6%)	4034

*급지는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연구는 McMillan & Chavis(1986)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구성원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의 4가지 특성과 학교공동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학교공동체의식, 학교구성원들 간의 관계, 배움과 돌봄을 위한 교육활동을 측정하는 조사도구를 개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영역은 크게 3영역, 첫째, 공동체의식, 둘째, 구성원들의 타구성원들과의 관계의식, 셋째,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교육활동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공사립여부, 연령, 자녀수, 자녀의 학년, 부와 모의 학력 등의 배경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881이었다. 이 설문지들은 2005년 5월 말에서 6월 초순까지 부산소재 24개교에 배포하여 회수 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문항별로 리커트 척도에 따라 반응을 1에서 5의 수치를 부여하였으며 긍정적인 방향일수록 높은 수치를 부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문항별 응답분포, 측정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량 분석(F검증)을 적용하였다.

<표 2> 조사영역과 문항의 구성

학교공동체 구성요소	학교공동체 하위구성요소	문항수	cronbach's α		
			문항수	α	총 α
학교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학교관	3	.588	.664	.881
	돌봄과 협력	4	.579		
	참여의식	3	.615		
	소속감/충족감	2	.546		
공동체적 관계	교사와의 관계	8	.831	.831	
공동체적 교육활동	학교교육활동참여	4	.526	.784	
	학교운영활동참여	3	.634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	6	.590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의식, 관계, 활동

1)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의식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의식(M=3.82)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공동체적 학교관'을 묻는 문항들에서는 대체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가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지'(M=4.32)와 '공동체적 교육내용이 더 많아야 하는지'(M=4.37) 등의 문항에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M=3.70)라는 문항에서도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면 부산시 학부모들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학교가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돌봄과 협력'의 영역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양보와 배려'(M=4.43)를 가르치고 있으며,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M=4.23)를 가르친다고 응답함으로써 부산시 학부모

들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타인에게 양보와 배려를 할 줄 아는 아이, 서로 배우고 가르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성인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한 의무를 인지’하고(M=3.83)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본적으로 부산시 학부모들은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녀가 공부 잘 하는 아이와 어울리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이론적 평균치(M=3.12-역코딩)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으로써 아이들의 성적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학부모의 참여의식에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봉사활동에의 참여’(M=3.85)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간을 상회하는 정도의 ‘학교활동에의 참여’(M=3.66)를 강조하고 있지만 학부모 자신의 ‘학교참여’(M=2.95)에 대해서는 중간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감과 소속감의 영역에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상당히 만족(M=3.93)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목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을 조금 넘는 정도의(M=3.41)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이기에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학부모의 학교공동체의식 관한 기술통계

학교공동체 구성요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교공동체의식		4440	3.8222	.41038
학교공동체의식 하위구성요인	공동체적학교관	4555	4.0405	.62840
	돌봄과 협력	4565	3.8863	.56227
	참여의식	4555	3.4094	.74997
	소속/충족감	4601	3.6864	.65007

2) 학부모의 교사와의 관계

학부모들의 교사와의 관계성은(M=3.53)은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고’(M=4.39) 있으며, ‘아이들에게 교사를 존경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M=4.28)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학부모들은 교사와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문제를 교사와 상담하는

지'의 문항(M=2.77)이나 '교사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M=3.17) 혹은 '교사를 잘 알고 있는지'(M=2.99)에 대한 응답에서는 중간이나 중간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학부모들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지만 실제로는 교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의사전달의 통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과의 관계를 중간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M=3.47)로 인식하고 있으며(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49.5%) '교사들이 학부모를 존중하고 배려'(M=3.66)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도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59.5%)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수치상으로만 보면 양호한 편이지만 절반 정도의 학부모들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민주적이거나 평등하지 못하고 교사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학교공동체 형성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연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공동의 노력을 지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4>학부모의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기술통계

학교공동체 구성요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교사관계	4531	3.5321	.67099

3) 학부모의 공동체적 교육활동

학부모의 공동체적 교육활동은(M=2.6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에 참가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학부모들의 '학습참가가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것(M=3.23)이지만 '수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M=3.04)에 대해서는 중간정도로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상담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에의 참여의지'(M=2.89)에 대해서는 이론적 평균치 이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참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현재 학습참가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다(M=1.52)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활동참가에 대한 인식은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이며 구체적인 참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공동체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에서는 중간정도(M=3.17)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치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M=2.80)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묻는 문항들에서도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일’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각 M=2.33, M=2.63)는 반응을 보이고, ‘학교에 대한 지원’(M=2.76)과 ‘학부모회의 필요성’(M=2.77)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었으며 구체적으로 ‘학부모회에 참여하고 있는지’(M=2.38)에 대한 반응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M=2.71)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이기에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학교활동에의 참여도 적극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점에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습/학교참여와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하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표5>학부모의 공동체적 교육활동에 관한 기술통계

학교공동체 구성요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공동체적 교육활동		4484	2.6814	.54985
공동체적 교육활동 하위구성요인	교육활동참여	4565	2.7318	.68806
	운영활동참가	4582	2.9204	.78052
	학교에 대한 이해지원	3944	2.5934	.59284

2. 학부모들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의식, 실천, 관계 및 활동1)

1)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학부모의 공동체의식, 실천, 관계 및 활동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공동체 의식, 관계, 활동에 대한 기술통계치에서 학생의 모가 교사

1) 배경요인에서 자녀수, 자녀의 학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의 학력에 따른 공동체적 특성의 차이는 모의 그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였다.

와의 관계에서 $P < .001$ 수준으로, 공동체적 교육활동에서는 $P < .05$ 수준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공동체의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의 모가 학생의 부모다 교사와의 관계, 공동체적 교육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여성적인 특성과 학생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학교-교사와 접촉하는 빈도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학부모들의 성별에 따른 학교공동체 구성요인간의 차이

	남(N:666)		여(N:3406)		F
	M	SD	M	SD	
학교공동체의식	3.8238	.42160	3.8269	.40452	.032
교사관계	3.3551	.67600	3.5659	.66124	56.185***
공동체적 교육활동	2.6416	.53628	2.6912	.54732	4.612*

* $p < .05$, *** $p < .001$

2) 공사립에 따른 학부모의 공동체의식, 실천, 관계 및 활동

공사립학교에 따른 학부모의 의식, 관계, 활동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전 구성 영역에서 사립학교 학부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구성요인별로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 전체 구성요인에서 $P < .001$ 의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학부모 보다 더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립학교 진학은 학부모의 적극적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소속감, 연대감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점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교-학부모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 사립학교 학부모와 공립학교 학부모간의 교육관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7>공사립학교에 따른 학교공동체 구성요인간의 차이

학교금지(N:4256)	공립(N:3663)		사립(N:593)		F
	M	SD	M	SD	
학교공동체 구성요인					
학교공동체의식	3.8023	.40817	3.9630	.37818	80.693***
교사관계	3.4692	.66081	3.9256	.58026	251.439***
공동체적 교육활동	2.6631	.54397	2.8311	.54890	48.510***

*** $p < .001$

3) 모의학력에 따른 학부모의 공동체의식, 실천, 관계 및 활동

학력에 따른 모의 공동체의식, 관계 및 활동에 관한 기술통계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체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성요인별로 보면 모의 학력 간에 모든 학교공동체 구성요인에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높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모의 학력에 따른 학교공동체 구성요인간의 차이

모의학력 (N:3872)	초등졸 (N:10)		중졸 (N:81)		고졸 (N:1618)		전문대졸 (N:449)		대졸 (N:1510)		대학원이상(N:204)		F	scheff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학교공동체구성요인														
학교공동체의식	3.51 67	.475 97	3.67 59	.404 19	3.75 80	.410 48	3.84 09	.351 56	3.90 12	.392 68	3.93 46	.365 19	27.220***	2-4,2-5,2-6,3-5,3-6
교사관계	3.33 75	.745 47	3.21 30	.672 69	3.38 80	.657 78	3.52 76	.637 63	3.68 27	.635 30	3.83 09	.648 31	45.195***	2-4,2-5,2-6,3-4,3-5,3-6,4-5,4-6
공동체적 교육활동	2.30 00	.553 89	2.38 95	.520 30	2.58 04	.528 13	2.69 16	.511 22	2.79 51	.538 27	2.77 23	.533 26	32.778***	2-4,2-5,2-6,3-4,3-5,3-6,4-5

*** $p < .001$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6:대학원 이상(초등 졸은 사례수가 적어 생략)

4) 학교급지에 따른 학부모의 공동체의식, 실천, 관계 및 활동.

급지에 따른 학부모의 학교공동체의식, 관계 및 활동에 관한 기술통계는 학교공동체의식과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가, 나, 다 급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적 교육활동은 급지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9>학교급지에 따른 학교공동체 구성요인간의 차이

학교급지	가급지(N:1498)		나급지(N:1200)		다급지(N:965)		F	scheffe
학교공동체구성요인	M	SD	M	SD	M	SD		
학교공동체의식	3.8637	.38403	3.7901	.42577	3.7408	.41643	21.537***	가-나, 가-다, 나-다
교사관계	3.5207	.64581	3.4538	.67991	3.3794	.65606	10.830***	가-다, 나-다
공동체적 교육활동	2.6818	.53273	2.6258	.56759	2.6620	.53496	2.911	

* $p < .05$,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 형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부산시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의식은 $M=3.82$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공동체적 교육관’, ‘돌봄과 협력’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으며, 자녀들에게 중간을 넘는 수준에서 ‘봉사활동’과 ‘학교활동’에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돌봄과 협력의식 속에서도 자녀의 성적과 돌봄의 의식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규범적 의식, 즉 학교가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의식과 경쟁적인 사회-교육 분위기 속에서의 갈등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부모 자신의 참여의식은 중간이하로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학교와 가정 사이에 경계를 치고 있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존재함을 암시한다.

둘째, 학부모들의 교사와의 관계의식은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조사결과는 학부모들은 교사와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교사와의 구체적인 교육적 관계 정도는 중간이나 중간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학부모들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지만 실제로는 교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의사전달의 통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사들과의 관계를 중간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배려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공동체 형성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연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공동의 노력을 지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구조적인 약자로 인식(신옥순, 2002:197-198)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Lortie(1975)가 지적 하듯이 교사문화의 생태적 폐쇄성과 불간섭주의로 인해 학부모와의 교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학부모와 교사의 이러한 인식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어렵게 한다. 이점에서 교사들은 의식적으로 제3자의 생각을 받아들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인된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아이들만의 폐쇄된 관계로 시종일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부와 접촉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로서의 감수성을 풍부하고 예민하게 지니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지속

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부모 또한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이기적 동기에서의 교사관계에서 탈피해서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교육, 학교, 아이에 대해 교사와 함께 배워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활동의 차원에서 학습참가를 비롯한 실제적인 학교활동에의 참여수준을 보면 전반적인 ‘학교활동에의 참여’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실제적인 참여의지’는 중간 이하로 나타나 있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운영에의 참여’ 및 ‘학교에 대한 애와 지원’ 정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어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학교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통해 현재 우리의 학교와 학부모(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학교공동체 형성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학교나 교사의 힘만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형성 및 좋은 학교 만들기의 성공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와 학부모의 연대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학부모 단체 등 각 교육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넷째,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참여의지와 참여의 정도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의식과 실천의 괴리 현상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김영화(1995)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대부분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금전적 부담과 일부 학부모에게 집중된 참여기회, 대표 역할을 맡고 싶지 않아하는 학부모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들고 따라서 학부모의 참여는 금전적 부담이 없고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자문, 건의,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공식화, 공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 지금까지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단순한 수업참관이나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는 자기 자녀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이기적 동기에서 출발한 경우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피하고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가 학교활동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전통적인 학교관, 즉 교육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독점적 지위라는 관점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영역이며 학부모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관행을 만들어 왔다(Seeley, 1989). 따라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의 실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학교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학교 불신과 학교의 교육독점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배경에 따른 학교공동체 특성의 차이를 보면 학생의 모가 교사와의 관계, 공동체적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부모보다 유의한 수준의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Gilligan이나 Noddings의 주장처럼 남성들이 경쟁의 원리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반면 여성들을 돌봄의 원리 의해 양육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관계성, 배려, 친밀성의 공동체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학교-교사와 접촉하는 빈도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가정의 협력적 공동체 형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학교-학부모 협력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립과 사립학교에 따른 학교공동체 구성요인들의 차이를 보면 사립학교 학부모가 학교공동체 전체 구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더 공동체적이라는 연구들(Bryk, Lee, & Holland, 1993; Coleman & Hoffer, 1987)과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가 더 공동체적인 이유로 학부모의 자발적 학교선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공유된 신념과 교육목표, 교사의 이동이 적다는 점, 공립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의 학교로 교사-학부모간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특성을 곧바로 공립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사 순환근무제의 탄력적 적용, 한교사가 적어도 2년 이상 같은 반 담임을 맡게 하는 방법, 학부모의 학습참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학부모와 교사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공동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급지에 따라서는 가급지일수록 학교공동체의식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공동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의 다방면의 성장에 관심이 높으며, 공식적-비공식적 학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심미옥, 2003)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점은 학교공동체 형성과정에서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하층인 학생-학부모의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학교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학교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공동체의식, 관계 및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는 학부모들의 비교적 높은 학교공동체의식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관계 및 활동은 중간이나 그 이하로 나타나 학교공동체 형성수준이 기대한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육개혁 노력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간의 신뢰회복과 연대를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특별한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학부모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점에서 학부모의 수업참여를 통한 배움의 학교공동체 형성노력(손우정, 2004)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학교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고 이렇게 제고된 학교에 대한 이해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의 교육독점의 논리가 해체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사 혹은 학교만의 고유 활동이라는 인식은 학부모,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배움이란 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가 교사와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가 학교를 공동체로 개혁하는 데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깊게 지각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학교공동체 특성을 학교공동체의식으로 단면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의식, 관계, 활동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공동체적 특성이 갖는 복잡성과 다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의식, 관계, 활동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점에서 의식, 관계, 활동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입시에 여유가 있고 교사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의 빈도가 많은 초등학교와 입시에 직면해 있고 교사와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등학교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점에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권오상(1999). 초등학생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조사연구-경기북부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대현, 손우정(2005). 수업을 중핵으로 한 '배움'의 학교공동체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3(4), 131-155.
- 김경준(1998). 지역사회주의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화(1995).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교육이론과 실천*, 5, 15-28.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현신(1999).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부모의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노종희(1998). 학교공동체의 개념적 분석과 그 구축전략. *교육행정학 연구*, 16(2), 385-401.
- 박부권 외(2002). 교육공동체 변화에 관한 연구: 권력집중형 교육공동체로부터 탈중심형 교육공동체로의 이행. 교육인적자원부.
- 박정민(2002). 초등학생의 공동체의식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서근원(2004). 산들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교육인류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손우정(2004). 수업을 중핵으로 한 '배움의 공동체'실천. 일본 '하마노고 소학교'의 실천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2(3), 375-396.
- 신옥순(2002). 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 경험. *교육논총*, 19, 196-207. 인천교육대학교.
- 신정아(2005).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참여가 학생들의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9.
- 양낙진(1990).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 우남희 외(1998). 21세기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동체교육: 이론과 실천의 장기참여관찰연구 I.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광용(1999).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 이숙정(2005). 교사신뢰도 개발 및 교사신뢰와 학교효과변인의 관계모형검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순형(2003). 학부모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의 혁신: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3(2), 1-20.
- 이영진(2004). 초중등교사의 공동체의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 이진영(2004). 학교의 사회적 조직변인과 교사의 공동체의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대학교.
- 임만수(1998). 초등학생의 공동체적 시민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전현곤 · 한대동(2007). 수업협의회에 기초한 배움의 학교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4(3), 199-221.
- 정문성(1994). 사회과 협동학습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회와 교육*, 19, 259-276.
- 정영수(2003).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과제.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주주자(2003). 사회과협동학습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주철안(2001). 학교공동체이론의 탐색과 교육행정의 과제. *지방교육경영*, 6(2).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최영아(2005). 지역사회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과 참여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 대동 외(2007). 배움과 돌봄의 학교공동체. 학지사.
- 황기우(1992). 한국교사문화에 대한 해석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佐藤 學(1999). 손우정 역(2001). 교육개혁을 디자인 한다. 공감.
- Battistich, V., Solomom, D., Kim, D., Watson, M., & Schaps, E.(1995). Schools as Communities, Poverty Levels of Student Populations, and Students' Attitudes, Motives,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3), 627-658.
- Beck, L., & Foster, W.(1999).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Considering Challenges, Exploring Possibiliti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San Fransisco: Jossey-Bass.
- Braatz, J., & Putnam, R. D.(1996). Families, Communities, and Education in America: Exploring the Evidence. *ERIC*. ED 412 637.
- Brookover, W. B., Beay, C., Flood, P., Schweitzer, J., & Wisenbaker, J. (1979). *School Social System and Student Achi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t*. NY: Praeger.
- Bryk, A. S., Lee, V. E. & Holland, P. B.(1993). *Catholic school and the common goo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P.(1998). *Parents, Student, And Teacher Opportunity*. New York: Arno Press.
- Coleman, J. S., Hoffer, T., & Kilgore, S.(1982). *High School Achievement*. New York: Basic Books.
- Conley, D. T.(1997). *Roadmap to Restructuring: Charting the Course of Change in American Education*. University of Oregon : ERIC Clearinghouse on Educational Management.
- Croninger, R. G. & Finkelstein, B(2002). "Listening to Communities: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Education and Human Services" Gail Furman(ed). *School as Community: from Promise to Practice*.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 Maclver, D.(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1). 90-101
- Epstein, J. L.(1995). School/ Family/ Community Partnerships. Caring for the Children We Share. *Phi Delta Kappan*, 76(9), 701-711.
- Furman, G.(2002). *School as Community: From Promise to Prac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eath, S. B. & McLaughlin, M. W.(1993). Identity and Inner-City Youth: Beyond Ethnicity and Gender. New York, NY: Teacher Press.
- Lee, E., Dedrick, F. & Smith, B.(1991). The Effect of the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on Teacher's Efficacy and Satisfaction. *Sociology of Education*. 64.
- Lee, V. E. & Croninger, R. G.(1996).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Case of

- Education. *ERIC*. ED 412 629.
- Lortie, D. (1975). *Social 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Millan, D. W., & Chavis, D. M.(1986). Sense of Community: A theory and Defini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erz, C., & Furman, G.(1997). *Community and Schools: Promise and Paradox*.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Muller, C. (1993). Parent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nalysis of Family Resources Available to the Child. In B. Schneider, & J. S. Coleman(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77-114. Boulder. Co: Westview Press.
- Newmann, F. M (Ed).(1992). *Student Engagement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econdary Schools*.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Newmann, F. M. et al. (1996). *Authentic Achievement: Restructuring schools for intellectual qualit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Osterman, K. F. (2000). Students' Need for Belonging in the School Communi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3). 323-367.
- Philips, M.(1997). What makes schools effective? A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s of communitarian climate and academic climate to mathematics achievement and attendance during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4(4).
- Pianta, R. C., & Steinberg, M.(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Rutter, M., Maughan, B., Mortimore, P., Ouston, J., & Smith, A. (1979).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rgiovanni, T. J. (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cisco, CA: Josey-Bass Inc.
- Seeley, D.(1989). A new paradigm for parent involvement. *Educational Leadership*. 47(2). 46-48
- Smith, G.(1994). Preparing Teachers to Restructure School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5(1). 18-31.
- Solomon, D., Battistich, V., Watson, M., Schaps, E., & Lewis, C.(2000). A Six District Study of Educational Change: Direct and Mediated Effects of the Child Development Projec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41(1). 3-51.
- Vygotsky(1978), 신현정 역(1985). *사고와 언어*. 서울: 정월사.
- Wehlage, G. G., Rutter, R. A., Smith, G. A, Lesko, N., & Fernandez, R. R.(1989). *Reducing the Risk: School as Communities for Support*. Philadelphia: Falmer.

Abstract

A Survey Research on The Status of school
community–building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in busan city area

Jeon, Hyeon-Gon*

The main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locate the status school community–building in busan city ara and explore ways of strengthening the school community. A parents of students questionnaire composed of a sense of commun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of students and other school constituents, and the school communal activities was administrated to 5,218 parents of students sampled from 24 elementary school in Busan.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arents of students' sense of school community was comparatively higher than the medium level. second, the level of relatedness between parents of students and other school constituents was the medium level. third, the level of the school communal activities of parents of students was a little lower than medium level. fourth, the level of school community–building of parents of students wa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desirable level. fifth, Thus each subjects of education must develop the various educational program which promotes parent involvement to the school education activity and remove the disbelief between the school and the parents of students.

Key Words : School community, A sense of school community, The communal relationship, school communal activities, Parent involvement.

*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